

SERIES OVERVIEW

The
Holiness
of God

st bart's

Scriptures taken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by Biblica, Inc.™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All rights reserved worldwide.

개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사건으로부터 직접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신 후,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체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는 극적인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킨 사건일 뿐 아니라, 죄로 물든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깊은 간극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회막”(Tent of Meeting) — 곧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려 했지만, 모세조차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사실(레 1:1)은, 그가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이 지점이 레위기의 출발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가?” 이것이 레위기가 제기하는 중심 질문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을 예시합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하나님의 성품일 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따라야 할 부르심이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삶의 본질입니다. 오늘날의 독자에게 레위기에 나오는 다양한 율법, 제사 규례, 정결 의식, 속죄 제사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레위기는 속죄의 본질, 즉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회복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값비싼 희생을 통해 용서의 길을 여셨다는 진리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레위기의 율법은 마치 건물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건물이 완성되면 설계도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그 설계도를 통해 완성된 건물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속죄의 설계도’인 레위기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전한 의미와 풍성함을 더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이 여섯 부분으로 구성된 시리즈에서 우리는 다음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마련하신 길이 무엇인지,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마련하신 구원의 길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Outline

Week 1	<i>Approaching a Holy God</i>	Leviticus 1-7 (<i>Focus: 1:1-9</i>)
Week 2	<i>A Holy Priesthood</i>	Leviticus 8-10 (<i>Focus: 9:22-10:3</i>)
Week 3	<i>Set Apart to be Holy</i>	Leviticus 11-15 (<i>Focus 11:41-47</i>)
Week 4	<i>The Day of Atonement</i>	Leviticus 16:1-34
Week 5	<i>A Call to Holy Living</i>	Leviticus 17-20 (<i>Focus 19:1-18</i>)
Week 6	<i>Holy People & Holy Time</i>	Leviticus 23-27 (<i>Focus 23:1-32</i>)

General Resources

- *Read (book):* “Leviticus: A 12-Week Study” by Michael LeFebvre.
- *Read (book):* “Rediscovering Holiness” by J I Packer.
- *Read (book):* “Holiness” by J C Ryle.
- *Read (commentary):* “Leviticus” by Katy Davis.
- *Watch (website):* “The Book of Leviticus” by the BibleProject:
<https://bibleproject.com/guides/book-of-leviticus/>

St Bart’s Resources (including for families)

For the series overview, weekly sermons, small group material, and weekly children’s curriculum, visit: www.stbarts.com.au/sermon-series/leviticus

To access these resources, visit: www.stbarts.com.au/sermon-series/leviticus

ADAM LOWE

St Bart’s Toowoomba, October 2025

-  Summaries by Adam Lowe (AL), Amy Norman (AN), Daniel Rouhead (DR)
-  Available to borrow from the St Bart’s Church Library (stbarts.com.au/library)

이 시리즈 개요 사용법

이 시리즈의 각 주차마다 성경 본문, 핵심 주제(**Big Idea**), 묵상 질문, 그리고 기도문이 함께 제공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기 (PRAY)

- 먼저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시고, 우리의 뜻을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읽기 (READ from the Bible)

- 그 주에 집중할 성경 본문을 읽으십시오. 본문 중 핵심이 되는 구절들도 함께 인쇄되어 있으니, 가능하다면 암송해 보아도 좋습니다.

묵상하기 (REFLECT)

- ‘핵심 주제(**Big Idea**)’를 읽고, 제시된 묵상 질문을 따라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은 **설교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후 진행될 소그룹 나눔을 위한 좋은 준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기 (PRAY)

- 당신의 마음을 담아, 자유롭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Week 1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레위기 1-7장 (특히 1:1-9 중심)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1:1-2

읽기: 레위기 1:1-9; 5:17-19

목상: 레위기는 처음 읽을 때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첫 장부터 끝없는 제사 규례와 피 흘림의 장면들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동물 제사가 흔했기 때문에 단순히 문화적 관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령으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34-38에서처럼,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순하고 반역적인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와 정결이 필요했습니다. 제사 제도는 바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 장치였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차 오실 완전한 제사, 곧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스스로 담당하신 완전한 중보자이시며, 그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으로써 우리의 용서와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 만약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매일 반복되는 제사와 피 흘림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어떤 것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기도

거룩하신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길을 열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기기 위해 치르신 그 값비싼 대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경외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2

거룩한 제사장직

레위기 8-10장 (특히 9:22-10:3 중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으라- 레위기 8:1-3

읽기: 레위기 8:1-10:3

목상: 레위기의 핵심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기’(Leviticus)라는 이름도 레위 지파, 곧 제사장 계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앞선 장들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에 관한 여러 규례와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명하신 후,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위임식은 매우 정교한 절차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의식들이 치밀하게 수행되었고, 회막 문 앞에는 모든 회중이 모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대표되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제사직의 시작을 목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백성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도덕적 순결과 의식적 거룩함에서 가장 높은 기준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즉시 불타 죽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임재의 엄위함과 순결함이 얼마나 심오한지를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자격으로는 그 앞에 설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식에 따라야만 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또한 장차 오실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생명을 누리게 하신 분입니다.

- 제사장 위임식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그 절차 속에서 무엇이 강조되었습니까?
- 제사장의 본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기도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하심의 아름다움과 무게를 깨닫게 하소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3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 (레 11:41-47 중심)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레위기 11:43-44

읽기: 레위기 11:1-47

육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지 제사나 제사장의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레위기 11-15장은 거룩함이 삶 전체—음식, 몸의 기능, 일상 행위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삶의 지침입니다. 깨끗한 것과 부정된 것을 구별하는 규례는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본래 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깨끗한 것과 부정된 것을 구별하는 일입니다(레 10:10).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깨끗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정한 것’이 곧 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독수리나 새우가 죄를 지을 수는 없지요. 다만, 그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직접 접촉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됨’은 곧 정결법과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7:14-23에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 규례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거룩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니라”는 부르심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말과 행동, 관계, 일터와 일상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입니다.

- ‘구별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별된 삶은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당신의 일상(가정, 직장, 공동체)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기도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4

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레 16:1-34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 16:34

읽기: 레위기 16:1-34

묵상.. 속죄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의 깊이를 동시에 드러내는 날입니다. 이 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세세하게 규정된 절차—몸을 씻는 행위, 피를 뿌리는 의식, 그리고 광야로 내보내는 속죄 염소—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는 현실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또한 속죄는 반드시 희생을 통한 대속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속죄일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인간의 방식이나 자격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정결과 순결을 요구하시지만, 동시에 자비와 은혜로 정결케 되는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 속죄일은 장차 오실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단 한 번,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완벽히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감사, 그리고 새로운 헌신으로 이끌립니다. 이제 거룩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 속죄일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 예수님은 속죄일의 의미를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결코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우리가 경외와 감사, 그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용서가 치러진 대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날마다 되새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ek 5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레 19:1-18 중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 19:1-2

읽기: 레위기 19

묵상 레위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뿐 아니라, 그분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신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19:1-2). 이 거룩의 부르심은 제사장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일상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삶은 예배의 태도, 인격의 성숙,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 나그네, 청각장애인, 맹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심계명과 유사한 부분도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윤리적 규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규례들은 현대의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규정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존중하며,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들과 구별된 존재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이유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 한다”는 부르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 거룩의 길은 율법의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응답입니다.

-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으로 거룩한 삶을 분별해야 할까요? 우리의 거룩한 삶을 돕는 분은 누구입니까?

기도

주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주님께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심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men**

Week 6

거룩한 백성과 거룩한 시간 (레 23:1-32 중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 레 23:23-24a

읽기: 레위기 23:1-3

묵상 레위기 후반부에는 거룩한 시간의 리듬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심으로, 그들의 삶의 시간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질서 있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구별은 단순한 휴식의 규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드러내는 표지였습니다. 날, 주간, 달, 해, 그리고 7년과 희년의 주기까지 — 모든 시간의 구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헌신하도록 초대하는 장치였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레위기의 시간 규례를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일한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주기적인 쉼의 리듬을 통해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유한성)를 인정하고, 참된 안식이 오직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뻐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된 쉼과 회복의 리듬을 경험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장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부르심을 받았지만, 스스로는 결코 완전한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분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 당신의 시간의 사용 방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어떻게 도와주고 있습니까?
-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불완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이의 간극을 메우셨습니까?
-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까?

기도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날과 주, 달과 해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조화롭게 세우게 하소서. 쉼과 예배의 리듬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이 오직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